



봉우컬럼

의롭게 살자

지난 연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처음으로 7남매가 함께 식사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동생들에게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의롭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의와 타협하는 자에게 인생의 봄은 오지 않는다. 왜냐? 성경은 말씀하신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욥31:23). 불의한 자가 받을 것은 환난과 불행뿐이라는 말씀이니 그 인생은 울겨울처럼 엄동설한일 겐다.

그렇다면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선한 행위일까? 성경은 다시 말씀하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갈2:16).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의와 불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나는 2023년 ‘음부(陰府)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는 표어를 내걸었다. 음부의 권세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말한다. 그 권세를 이기려면 그 권세보다 큰 권세자에게 붙으면 된다. 즉 하나님께 붙으면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의를 밟 먹듯 하면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 아닌가. 마귀 편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겠다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연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다(롬1:28~29).

정말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행하라.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음부(陰府)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자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은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목사님은 새해 슬로건, “음부(陰府)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를 넘어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자!”고 역설하셨다. 그 존재 자체가 악한 마귀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다.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는 단지 감당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말로는 온 인류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를 귀신들도 믿고 편다고 하지 않습니다(약2:19).

내가 새해 들어 주일 4부예배를 2시에서 3시로 바꾸며 은사집회로 몰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

다. 내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히 외치는 이유도 내가 행함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외 집회에 나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가짜 목사’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단 한 순간도 의심치 않기 때문이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38년 동안 비유로 알기 쉽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내 말은 너무도 쉽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한번 그 맛을



예수중심교회 송구영신예배 광경(2022년 12월 31일 밤 10시, KBS아레나홀)

기 어려운 존재를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말하지만 안보 없는 경제발전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대고, 무인비행기를 날려 보내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군사력을 강화하고 안보태세를 상시 점검하여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높여야 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에 더해 지혜롭고 발 빠른 국제외교를 통해 우군이 될 수 있는 나라들과의 견고한 연대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고전4:20).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녀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는지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밥이 되어 삶이 파괴되고 되는 꼬라지가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내가 외치는 이유도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뤘는데, 다 줬는데,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구나. 내 종들이 지식을 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구나!’ 그분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 39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본다면,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4부예배를 채우고 더욱 입을 크게 벌려 올림픽공원으로, 월드컵경기장으로, 저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천안문광장까지,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간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2023년 새해, 주일은사집회의 뜻이 올랐다. 선장의 지휘 아래 모두가 힘을 합쳐 힘차게 노를 저어보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아레나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8:5~8)



인생은 운명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저는 요즘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지웠다 그렸다가 반복하면서 스케치를 완성하고 그 후에 색을 입힙니다. 저는 원색을 워낙 좋아해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을 주로 선택해서 색을 입힙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대체로 강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결정하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스케치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색을 입히는 것이 말(언어)입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생각은 설계요, 말은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곧 생각과 말에 의해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과 말을 바꾸라

는 것입니다.

제가 74년 동안 살면서 행로법칙(行路法則)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던 말이라고요? 있었지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진립니다. 저는 배추 심고 무 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장미를 심고 국화가 피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약3: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곧 씨일진대 나쁜 말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뿌리고 긍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빨간색 물감을 칠했는데 시꺼먼 그림이 나올까요? No!

정말 그런지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정탐 때의 일과 결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12명이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보았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곳이라는 사실에는 12명 모두 만장일치였지만, 가나안 정착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지요. 10명은 그들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만 그곳이 우리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져 씨가 됩니다. 결국 10명을 비롯하여 그에 동조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고꾸라져 죽었고,

우리 둘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민14:38).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삼상17:43)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고 말했습니다. 그랬

더니 자신을 개로 비유한 골리앗은 개처럼 내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나는 훗날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인 암살복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말했더니, 과정은 있었으나 결국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습니다(대상29:28).”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저는 ‘세계교구’라는 액자를 보면서 늘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교구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문을 여셨고, 지금은 세계 73개국에 복음에 전하는 명실공히 세계교구를 이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여쭙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나는 천지만물을 지을 때 먼저 스케치를 했고, 말로 모든 것을 창조했단다.”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

시고… 그대로 되니라”(창1:6~7)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라는 뜻이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사가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잘 되고 싶지요? 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고 싶지요? 가내 두루 평안하고 싶지요? 방법이요? 아주 쉽습니다. 돈 안 듭니다. 재력이나 지력이나 학벌이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

여배가 부르게 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0~21)고 하셨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민14:28).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건강할 거야’ 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빌어먹을….’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찌 하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내 맘대로 못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약3:4~5).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말이 키와 같습니다. 잘된다고 말하면 잘 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된다는 쪽, 나쁘다는 쪽으로 갈 게

뭐 있습니까?

또 말은 불과 같습니다. 올진 산불 기억하시죠? 집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간 그 산불의 시작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커져 마구잡이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세 치밖에 안 되는 혀가 내 인생에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3:6). 그러니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억지로 심은 씨도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케치를 하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합니다. 색을 잘못 칠했다 싶으면 까짓 찢어버리고 스케치부터 다시 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얼른 지우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혹시 색을 잘못 칠했습니까? 잘못된 말을 이미 뿌렸습니까? 잘못된 말은 기도하여 회개하고 뿌리째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부정에 동의하지 마세요. 저는 운전해주는 총직 집사에게 “총직아, 부정에는 동의도 하지 마라.”고 권면했습니다. 동의해주는 것은 잘 그린 그림 위에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트린 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닌 그 한 방울이 그림을 망칩니다. 그것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군에게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낳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낳게 됩니다. 절대 생각 따로, 말 따로는 없습니다. 설계대로 건축되는 게 맞습니다. 스케치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성경도 그리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

인생은 말로 채색되는 예술이다

인생은 일생(一生)입니다. 한 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멋진 작품을 만들고 감시다. ‘뭘 천국만 가면 되지요.’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사로라는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멋지게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2023년, 생각과 말을 잘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3,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선교사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지옥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지옥의 권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시키러 온 마귀의 권세와 행위입니다. 지옥의 세력은 평화와 선(善)의 상실, 살인과 파괴와 황폐로 이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은 몰락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30년 전 독립 당시에는 인구 5,200만 명, 서독과 맞먹는 경제력, 과학과 산업의 발달, 세계 최대의 선박과 수송기, 원자력 발전소와 우주 로켓 등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도 없고, 경제도 없고,

저출산에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외부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출되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제는 이전 인구의 절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도시에서 이전의 희망과 의욕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옥의 세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먼저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선포하신 2023년 슬로건 자체가 외부세력이 작용하는 전제조건이 우리 내부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우상을 세웠는데 그것이 가증한 것이었습니다(삼하11:1~6, 겔8:5~18).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부 원수들의 행위까지도 형벌로 허락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경고도 그를 무시하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변화가 필요했습

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개혁에 대한 부풀려진 욕망과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쓰라린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열망과 열정 대신 정치인들이 애국심의 깃발 아래 민족주의 우상화로 이끌었던 독선과 자만, 헌신 대신 표면적인 경건, 사회정치적 몰이해와 성직자들의 무지로 모두 전향해버린 기독교인을 이룬 뿐인 평범한 라오디게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만과 정욕이 듣고자 하는 것을 귀에 걸면 우상과 나라가 크게 흥하리라는 거짓 예언을 만들어 한 세기의 1/3을 떠돌아다녔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영의 은사와 삶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기 쉽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주의 정신과 타락한 자유 정신이 현대 세대를 지배하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왜곡하고, 영적 열심을 고갈시키며, 한때 충실한 목사조차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현대의 라오디게아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정결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바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계 3:18~19)

이 말씀은 2023년 새해 슬로건인 “음부(陰府)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처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 국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전쟁과 파괴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소서. 올해는 한국의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 번영, 평온, 기쁨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기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악하고, 지독하고 끔찍한 음부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법원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으며 당한 고통이나 아픈 마음은 그 무슨 말로도 표현 못할 것입니다.

7년 전, 우루과이 예수중심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는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로 데려가서 구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70~100명까지 전도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구역의 한 청년과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루과이의 부모는 우리 교회 집사들인데 파라과이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임신했다며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동안 밥도 주지 않았다는니, 임신매매를 했다는니 별별 모함으로 결국 우루과이 검찰로부터 7년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 지내기도 하고, 급기야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목사님과 해외 집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언제 또 검찰에서 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두렵고,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꾸며대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7년이 20년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또 눈물로, 또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지내왔는데 드디어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한 결과, 마침 저희 담당 변호사가 크리스천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7년 만에 무혐의 처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사는 오직 눈물뿐이었습니다. 임으로의 감사도 있지만 영혼의 감사는 저의 경우에는 그저 눈물이더군요.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감사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또 감사, 눈물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한 음부의 권세를 감사로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 이 말씀이 마음과 환경이 어두웠을 때 등불이 되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있겠지만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감사도 연습이더군요. 제 경우에는 감사를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 변화가 오더라고요. 환경에서 감사를 찾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승리합니다. ‘예수님 찬양’ 가사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예수 바람’을 번역해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세요, 승리가 다가와요.’ 이렇게 불러봅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2023년 새해, 감사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2023년 새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중심교단 중남미 선교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

2023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입생 모집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다.
어느 날 권사님이 아주 좋은 멜론을 선물 받으셨다. 그것을 받은 순간에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우리 목사님을 대접해드려야지.’ 그런데 그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을 절반만 목사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목사님은 좋은 것 많이 드시니까 그냥 이것을 다 내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

하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 번째,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아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왕상17:13).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왕상17:12).
그런데 엘리아는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가져오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이 사람 사르밧 과부, 참으로 대단하다.
사르밧 과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2023년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모두 승리합시다.
일본 동경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시작이 반이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하면 된다는 믿음이 해보자 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요행

(微幸)만 바라다면 이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려, 근심, 고민이란 생각에 갇히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은 시도하지 않고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그냥 주저앉은 일들이 많다.
목회가 정체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3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끝나는 날 새벽에 꿈속에 생생히 잠언 5장 11~14절 말씀을 받았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은혜를 잃어 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버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

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안일하게 가다가 5개월 후에 대상포진이 왔고, 1개월 동안 말할 수 없이 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할 수 있었다. 기도를 회복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디모데 썬 선교사를 파송 받는 은혜를 입었다.
파송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때마다 오로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영혼의 열매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고 있다.
‘영혼을 보내주소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영어로 말하며 나눠줬다. 이렇게 시

작한 것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3만 장이나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아서 망설였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니까 더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다. 전도지를 받은 영혼들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영혼들도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2017년 호주 집회는 미약했지만, 오대양 육대주 마지막 주자로서 찬양단이 함께한 목사님의 신유 은사 집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할 것을 다짐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면 된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2023년,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호주 시드니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읍시다



예년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중에도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갑절 은혜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감

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 합니다. 은혜는 자물쇠요, 믿음은 열쇠입니다. 은혜의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꽂아 돌리면 되는데, 그 열쇠를 꽂아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혹시 주신 모든 신령한 복 앞에서 머뭇거리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듯 영적인 병이 생기면 영적인 입맛도 떨어집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이 먹기가 싫어지고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을 먹고,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입맛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인 삶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 분투하지 않고는 진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뒤쫓고, 사냥감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절실한 마음과 애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삶이며, 기도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마음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

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밤의 문을 닫는 빗장이 되게 하십시오. 최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애쓰고 힘써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서 오는 새해는 음부(陰府)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일본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